

충북 농업인의 농촌 근로자 선호도 연구

김미옥*

*충북연구원

e-mail:miok96@cri.re.kr

A Study on Farmers' Preferences for Rural Workers in Chungcheongbuk-do

Mi-Ok Kim*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배경으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677명을 대상으로 선호 인력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농업인들은 내국인(90.3%), 여성(53.5%), 50~60대(57.8%) 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체력보다 작업 숙련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다. 또한 2026년 장기 고용 의향이 높아진 점은 도시농부 사업이 안정적 노동력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중장년층 중심의 맞춤형 인력 육성과 장기 고용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가 구조적·만성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 투입량 감소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농촌 이탈과 맞물리면서 노동력 공급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농촌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 경영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파종·수확 등 계절적 집중 작업 시기에는 단기 고용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이는 소농·고령 농가의 영농 포기기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이라는 두 요인이 맞물려 농촌의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촌의 농업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충북형 도시농부사업(만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희 인력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전문 교육을 통해 영농 현장에 투입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충북의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노동인력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위해 농업현장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았다.

2. 연구방법

2025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참여한 677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한달 간 현장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StataSE17로 분석하였다.

3. 연구내용

설문응답자 677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연령별로는 60대(46.5%) > 70대 이상(23.8%) > 50대(21.0%) 순이었으며 성별은 남성(68.5%) > 여성(29.8%) 순이었으며 설문응답자 지역은 괴산군(21.3%) > 청주시(13.7%) > 충주시(12.36%) 순이었다.

'충북형 도시농부'의 고용기간은 '4주 이상'이 41.2%로 가장 높았고 '2~3주'가 16.7%로 다음으로 높았으나 타 기간과 비교적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2026년에 '충북형 도시농부'의 고용기간 계획에서 가장 많은 것은 '5개월 이상'이 26.6%, '1개월 이상'이 25.7% 순으로 2025년에 비해 더욱 장기간으로 고용하겠다는 응답하였다.

평소 농촌인력 고용방법은 도시농부를 제외하면 '자가인력(22.3%), 시설인력중계소(14.3%), 외국인인력 중개(12.9%) 순이었다.

근로자 선호조건으로 내국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90.3%로 외국인보다 높았으며 이는 농장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언어의 차이로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자조건 중 성별의 선호에 대한 응답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비중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여성(53.5%)이 더 높았다.

근로자조건 중 연령의 선호에 대한 응답결과는 50~60대(57.8%)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40~50대(25.3%)의 선호가 높았다. 따라서 젊은 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4. 시사점

첫째,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장기 고용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이다. 2025년 고용기간이 단기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2026년에는 '5개월 이상' 및 '1개월 이상' 장기 고용 계획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들이 도시농부를 단순 일회성 인력이 아닌 안정적인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 설계 시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와 지속 참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국인 중심의 인력 공급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내국인 선호 응답이 90.3%에 달하는 것은, 농업 현장에서 언어 소통과 작업 이해도가 생산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도시농부 사업과 같은 내국인 유희 인력 활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50~60대 중장년층을 핵심 공급 대상으로 설정한 맞춤형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의 선호 연령이 젊은 층이 아닌 50~60대(57.8%)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체력보다 농작업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 책임감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농부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의 실질적 대안으로서 제도적 안착이 시급하다. 평소 인력 고용 방법에서 시설인력중계소(14.3%), 외국인 인력 중개(12.9%)에 비해 도시농부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이 사업이 기존 공급 채널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방증한다. 단순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충북 농촌 인력 공급 체계의 핵심 축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북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조건을 국적, 연령, 성별, 고용기간 등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농촌 고용인력들이 보유한 농업적 지식과 능력에 대한 부분은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